

Abstracts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By Jo, Yong-Hun

(Hannam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The integration of Christian faith and learning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the Christian university. Nevertheless, the scientific positivism of the university and the anti-intellectualism of the Korean churches are obstacle to this task.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necessities and the possibilities of this academic work.

The academic work for integration of Christian faith with learning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ruth is one and grounded in the revelation of God in Jesus Christ. As Clement of Alexandria said, all truth is God's truth, no matter where it's found. The academic work of the Christian scholars is worship of God in the sense that it confess the sovereignty of God over all things inclusive of the scholarship. Christian faith seeks understanding(*fides quaerens intellectum*) and critics of the absolutization and the dogmatism of the scholarship.

In the academic work of the Christian scholars for integrating of faith and their academic disciplines, the Bible is useful resources as well as norm. Seeking to counter the fragmentation and the superficiality of the contemporary academy, Christian scholars need to have an interdisciplinary dialogue among them. And the formation of a Christian

worldview is necessary for integrating of faith with learning by way of sticking fragmented knowledges together.

Christian university should encourage and support faculty, financially and executively, to equip for research and teach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ity and their academic disciplines. But, the task of the integration of faith with learning seems an ideal never fully accomplished by human being but only God himself.

***Key Words**

과학실증주의, 반지성주의, 신앙과 학문, 소명으로서 학문, 세계관, 학제간 연구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the scientific positivism, worldview

I. 서론¹⁾

오늘날 대학의 지성 분위기를 살펴보면, 신앙과 학문이 무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앙이 학문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상당수의 경건한 그리스도인 교수들조차 그들이 전공하는 학문 분야가 신앙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무관심하기조차 하다. 그들은 대학을 순수 지성의 토론과 교육을 위한 장소로만 인식하면서, 종교활동은 학과과정 이외의 활동(extra-curricula activities)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들에게 종교란 개인적인 일로서, 강의실 밖에서는 자유롭게 논의되고 토론될 수 있지만, 공공적인 강의실이나 연구실에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과 학문의 분리’는 ‘신앙과 삶의 분리’이며, 그것은 결국 인간성을 상실하는 일이다.²⁾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 대한 책임은 교회와 대학 양측 모두에서 찾을 수 있다. 교회는 너무나 반지성적이어서 그리스도인 교수들에게 신앙과 전공 학문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체계적으로 교육하거나 지원해 준 일이 없다. 세속화된 대학 역시 반종교적인 계몽주의의 학문방법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종교를 강의실과 연구실 바깥으로 내몰았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대학교육이 비종교화 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가 반지성주의적이 되면서 기독교 지성은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기독교 지성의 붕괴는 교회는 물론 사회에도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교회는 비판적 지성을 상실함으로써 점점 더 기복적이고 맹

1) 이 논문은 2003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논문임.

2) 김기숙, 「코메니우스의 인간성 교육론과 기독교 대학」(한울출판사, 2003), 5~6.

신적으로 바뀌고 있다. 사회는 지식의 의미와 방향을 상실함으로써 점점 더 피상적이고 맹목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크 슈웬(M. Schwehn)은 “고등교육에서 종교는 계몽을 필요로 하고, 계몽은 종교를 필요로 한다.”³⁾고 강조하였다. 종교는 이성과 관용, 탐구의 정신을 통해 종교적 맹목성을 교정할 수 있다. 한편, 계몽은 종교를 통해 지식의 의미와 목적, 방향을 얻게 된다. 계몽 없는 종교가 근본주의적 맹목성을 지닌다면, 종교 없는 계몽은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세계를 파괴하고 만다.

기독교 지성의 계발을 위해서 신앙과 학문을 올바르게 관계 맺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 학자가 자신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통합하는 일이야말로 자신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이며, 나아가 기독교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길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신앙과 학문의 관계를 탐구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우선, 왜 오늘날 대학의 지성 분위기에서 신앙과 학문이 분리되었는지 살펴본 다음에 신앙과 학문의 바른 관계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검토하고 방법들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하겠다.

II. 신앙과 학문의 갈등과 분리의 원인

1. 과학 실증주의적 학문방법론

3) M. Schwehn, *Exils from Eden: Religion and the Academic Vocation in America*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136.

12세기에 대학이 설립된 이후 줄곧 대학에서의 학문 활동은 기독교 신앙과 밀접히 관련되어 진행되었다. 토마스적 전통에 따라 계시의 영역인 신앙과 이성의 영역인 학문이 상호 보완 관계에 있었다. 심지어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케플러, 뉴턴 같은 근대 초기의 과학자들조차 유신론적 기독교 세계관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근대에 과학 실증주의가 발전하면서 신앙과 학문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로 발전해갔다.

첫째, 과학 실증주의자들은 종교적 신앙이 객관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는 학문활동을 저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과학적 지식은 객관적 실험과 검증 가능한 경험에서 나오는 반면에, 종교적 신앙은 주관적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과학 실증주의가 발전해가면서 과학은 대학에서 다른 학문분야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 비학문적인 것으로까지 평가절하 했다.⁴⁾ 과학 실증주의자들은 종교를 독단주의나 미신으로 매도하기도 했다. 데이비드 흄(D. Hume) 같은 철학자는 바람직한 성품을 자신과 타인의 유용성에 두면서, 독신, 금식, 자기부정, 겸손, 침묵 같은 덕목들을 사회에 무익한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그런 덕목들은 결국 인간과 사회에 필요한 이해력을 마비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⁵⁾ 그 결과, 기독교적 유산에 의해 세워졌던 기독교 대학의 학문 활동에서조차 종교는 점점 배척되고 있다.

과학 실증주의적 학문방법론이 지닌 이런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진리의 객관성, 과학적 지식의 가능성, 사고의 주체로서 개인에 대한 강조, 그리고 진리의 보편성에 대한 확신이야말

4) 신득렬, 「위대한 대화: R. M. Hutchins 연구」(계명대학교출판부, 2002), 57.

5) M. Schwehn, *Exiles from the Eden*, 46.

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공동체의 죽음과 소외의 원인이라고 한다.⁶⁾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과학 실증주의에 의해 무시되었던 주관적 신념과 종교적 신앙이 지니고 있는 학문 방법론적 타당성이 새롭게 인정되고 있다.⁷⁾ 이제는 과학자들조차 바람직한 과학적 태도가 단지 지적 엄밀성이나 객관성만이 아니라, 상상력, 직관, 영감, 그리고 개방성과 같은 비과학적인 요소들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한다.⁸⁾

둘째, 과학적 실증주의는 사실과 가치를 엄격히 구분하면서 학문의 ‘가치중립성’을 내세운다. 과학적 연구는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인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말이다. 한 예로써, 사회학자 조지 룬드버그(G. A. Lundberg)는 폭발물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라는 물음이 화학자의 일이 아닌 것처럼, 자신의 사회학적 발견이 사회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물음도 그의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⁹⁾ 가치중립을 신봉하는 이러한 학문 경향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사회과학을 예로 들더라도, 학문 발생 초기에 심리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정치학, 경제학과 같은 사회과학은 대체로 도덕철학 과목 안에서 연구되고 교수되었다. 하지만 1870~80년대에 이르면서 독자적인 권리를 요구하게 되고,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비로소 독립적인 학과목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1920년대에 이르면 사회과학에 대한 경험적이고 객관적이고 윤리적으로 중립적인 태도가 지배적 경향이 된다.¹⁰⁾

6)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대한기독교서회, 2000), 21.

7) H. Fernhout, “포스트모더니즘의 격랑을 헤쳐나가야 할 기독교교육”, 「빛과 소금」(1996/11), 46.

8) 신득렬, 「위대한 대화」, 59~60.

9) D. Sloan, *Faith and Knowledge: Mainline Protestantism and American Higher Education* (John Knox Press: 1994), 19.

10) D. Sloan, *Faith and Knowledge*, 17~18.

하지만,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는 이러한 학문적 태도는 오늘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선입견이나 세계관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해석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실이란, 오직 해석이라는 틀을 통해서만 인식되어진다. 사회과학을 예로 들면, 사회적 실재나 사회현상은 객관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며 생각하고 행동하는 연구자의 의식 자체에 의하여 선택되고 구성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가치판단이 작용한다.

학문에서 종교적 관점을 제거해야 한다는 이러한 과학적 실증주의 학문 태도가 지닌 문제점에 대하여 조지 마스덴(G. M. Marsden)은 다음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¹¹⁾ 첫째, 자연과학의 경험론적 연구방식을 다른 학문영역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기 곤란하다. 둘째, 학문적 신념이 반드시 경험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사회적 평등과 같은 신념은 과학적 논증에서가 아니라 도덕성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셋째, 학문에서 종교적 관점을 제거해야 한다는 원칙은 근본적으로 실행 불가능한데, 이는 종교적 관점이 필연적으로 학문적 논의들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오늘날 대학에서 자연주의적 전제들에 기초한 학문에 대해 지나치게 호의적이고 무비판적이다.

2. 한국교회의 반지성주의

한국교회의 근본주의적 신앙 양태는 신앙과 학문 이원론을 부추기고 있다. 기독교 대학에서조차 지배적 현상이 되어버린 신앙과 학문의 분

11) G. Marsden, 조호연 역, 「기독교적 학문 연구 @ 현대 학문 세계」(IVP, 2000), 49~51.

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는 신앙적 이원론의 영향을 받고 있다. 영과 육,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대한 잘못된 이분법은 신앙을 오로지 교회생활이나 종교활동으로만 파악한다. 그 결과 교회 바깥의 일상생활, 즉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의 삶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일로 머물고 만다. 그들에게 대학에서의 학문활동은 신앙과는 무관한 세속적인 일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근본주의 신앙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하며 인간 이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본래, 학문이란 논리적이고 설득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전제한다. 하지만, 근본주의 신앙에 나타나는 이성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건전한 기독교 학문이 불가능해진다.

교회사적으로 살펴볼 때, 한국교회의 반지성주의적 특징은 우리 나라에 기독교를 전해 주었던 미국 선교사들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1920년대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는 계몽주의에 적응하려는 자유주의 신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닌 현대주의 기독교에 대한 반작용으로 근본주의 신앙운동이 일어난다. 이 신앙운동에는 인간 세계의 문화적 낙관주의를 거부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기독교교육을 통한 도덕성의 점진적 개발 대신에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을 강조하는 ‘성결운동’, 그리고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초자연적 신유와 방언을 강조하는 ‘오순절운동’이 포함되었다.¹²⁾ 근본주의는 교리적으로 성경무오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육체적 부활을 고집한다. 이들은 성서에 대한 고등비평적 연구를 거부하며, 진화론 대신에 창조론을 학교에서 가르칠 것을 주장하였

12) G. Marsden, 홍치모 역, 「미국의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이해」(성광문화사, 1992), 60, 49~51.

다. 마크 놀(M. Noll)의 주장대로, 근본주의는 세속화되는 사회에서 그 나름대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데 공헌하긴 했지만, 지성사적인 면에서 본다면 재난을 가져다주고 말았다.¹³⁾ 왜냐하면, 대부분의 근본주의자들은 고등교육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며, 교육받은 목사를 영성에 대한 방해거리로 생각했기 때문이다.¹⁴⁾

그런데,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미국 장로교 선교사 대부분이 이러한 근본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20대의 젊은 목사들이었다.¹⁵⁾ 하지만, 1930년대 들어서 일본이나 미국에서 보다 자유로운 신학을 연구한 한국인 목사들이 귀국하면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신학적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평양신학교의 박형룡 박사와 송인상업학교의 김재준 목사 사이에 일어났는데, 김재준은 <신학지남>에 투고한 “이사야의 임마누엘 예언 연구”라는 글에서 성서 축자영감설을 비판한 반면에, 박형룡과 박윤선은 성서 무오설과 축자영감설을 옹호하면서 성서에 대한 비평적 연구를 거부하였다.¹⁶⁾ 1934년에는 남대문교회 김영주 목사가 창세기의 모세 저작을 부인한 일과 김춘배 목사가 여성과 관련하여 진보적인 성서해석을 시도했다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유형기 목사를 중심으로 번역한 아빙돈(Abingdon) 성서주석도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세계교회협의회(WCC) 가입을 둘러싸고 장로교 내에서 신학적 갈등이 생겨났다.¹⁷⁾

이렇게 형성되고 발전한 근본주의적 신앙양태의 영향을 받아 한국교회의 반지성주의가 고착되었다. 반지성적 교회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

13) M. A. Noll, 이승학 역,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엠펙스, 1996), 41.

14) G. Marsden, 「미국의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이해」, 139.

15) 간하배, 「한국 장로교 신학 사상」(실로암, 1988), 4.

16)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410~413.

17)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413~485.

활을 한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대학에서 신앙과 학문을 제대로 통합하기란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지적 성찰과 비판이 결여된 한국교회의 신앙양태는 이후 더욱 기복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III. 신앙과 학문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전제와 토대

1.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대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공동체로서 대학의 구성원들은 진리 자체에 대해 의무감을 가진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진리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학문이 추구하는 진리의 근원으로서, 모든 진리는 그분으로부터 나오며 그분 안에서 통일된다.¹⁸⁾ 코메니우스(J. A. Comenius)의 생각처럼,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정점이며 완성일 뿐만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지식들을 연결하고 포괄하는 통합체이다. 따라서 인간 지식과 삶은 하나님께 귀속되어야 한다.¹⁹⁾ 일찍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는 모든 진리는 그것이 어디서 발견되든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다.²⁰⁾ 따라서 어떤 진리가 비록 비기독교인에 의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척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18) A. Holmes, 박진경 역, 「기독교대학의 이념」(CUP, 1992), 27.

19) 김기숙, 「코메니우스의 인간성 교육론과 기독교 대학」, 277.

20) A. Holmes, 서원모 역,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25.

‘하나님이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본질, 그리고 역사의 의미라는 뜻이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잠 9:10)고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요(요 14:9), 그 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으며(골 2:3), 모든 것은 그 분 안에서 통합된다(엡 1:10).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진리란 없고, 모든 진리는 하나님에게 의존한다.²¹⁾

한편,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할 때 그것은 ‘명제적 진리’만이 아니라 ‘인격적 진리’도 가리킨다.²²⁾ 따라서 “진리가 무엇인가?”던 빌라도의 물음은 잘못된 물음이다. 왜냐하면, 인격적 진리란 계몽주의 인식론에서처럼 대상화하여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²³⁾ 그리스도를 진리 자체로 고백할 때, 우리는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진리에 소유 당하게 된다. 루이 뒤프레(L. Dupre)의 표현처럼, 진리이신 그 분은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 요구이기 때문이다.²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각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치 그 분야의 진리를 마음대로 다루거나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하지만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는 학자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이 먼저냐 학문이 먼저냐’ 하는 질문은 잘못 제기된 물음인데, 이는 하나님은 학문 안에서 그리고 학문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²⁵⁾

21) A. Holmes,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52.

22) A. Holmes,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47.

23) P. Palmer, 이종태 역,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IVP, 2000), 78~81.

24) P. Palmer,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169.

25) A. Holmes, 「기독교대학의 이념」, 94.

일찍이 갈뱅도 참 지식은 차가운 사변 속에만 자리잡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섬길 것을 요청하는 지식이라고 말했다.²⁶⁾ 하나님 지식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며, 그분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구하고 그분에게 찬양을 돌리도록 가르치는 지식이다.

2. 문화위임 명령으로서 학문활동

성서의 창조 이야기는 피조세계에 대한 인간의 문화위임을 포함한다.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돌보며 가꾸고 다스리게’ 하셨다(창 1:28; 2:15). 학문활동은 피조세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 가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피조세계를 가꾸고 돌봄으로써 창조주의 주권을 드러내는 일이다.

일찍이 갈뱅은 인간의 모든 문화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와 문화의 기독교적 변혁을 위한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1559년 제네바에 아카데미를 세웠다. 갈뱅의 제네바 아카데미는 이후 유럽의 여러 대학들에 영향을 미쳤다. 갈뱅 신학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상가 가운데 하나인 아브라함 카이퍼(A. Kyuper)는 네덜란드 자유대학 개교연설(1880)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인간 경험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모든 것의 주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을 그 어떤 영역도 존재하지 않는다.”²⁷⁾

26) 이수영, “갈뱅신학의 특징과 한국신학”, 한국성서학연구소편, 「한국적 신학의 모색」 (한국성서학연구소, 1992), 202.

27) J. D. Bratt and R. A. Wells, “Piety and Progress: A History of Calvin College”, in: R. T. Hughes and W. B. Adrian, *Models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Eerdmans Publishing, 1997), 143 재인용.

문화위임의 관점에서 볼 때, 신앙과 학문을 분리하여 ‘신앙 따로 학문 따로’의 삶을 사는 것은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일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학문생활을 포함한 전 삶의 영역에서 주인이시길 원하신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학자들은 학문활동을 통해 이 세계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 세계에 대한 그분의 주인 되심을 증거 해야 한다.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고후 10:5)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그리스도인 학자들은 한편으로는, 자신들에게 알려진 진리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학문적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²⁸⁾ 그리스도인의 학문활동은 숨겨진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사회와 국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3.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기독교 신앙은 이해를 추구한다. 일찍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리고 나는 더 잘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²⁹⁾ 고 했으며, 안셀름은 기독교 신앙을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fides quaerens intellectum)이라고 표현했다. 기독교 신앙은 마음으로 신뢰

28) D. Dockery, “Introduction: Shaping A Christian Worldview”, D. S. Dockery & G. A. Thornbury, *Shaping A Christian Worldview. The Foundation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2), 13.

29) B. Green, “Theological and Philosophical Foundations”, D. S. Dockery & G. A. Thornbury, *Shaping A Christian Worldview*, 81 재인용.

하고 의지를 통해 헌신할 뿐 아니라 지적 이해를 추구한다. 자신의 신앙 체험이나 믿는 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없는 맹목적이고 관습적 신앙은 그리스도인을 미신과 광신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식 영역에서도 새롭게 된 존재이어야 하며(골 3:10),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훈련된 지성인이어야 한다(벧전 3:15).

그래서 기독교 사상가들은 한결같이 복음전파를 위해서라면, 세속적 학문까지도 적극 수용할 것을 강조했다. 가이사랴의 바질(Basil of Caesarea)은 그리스 작품들이 가치 있는 도덕적 원리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적극적 수용을 역설했다.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도 스토아 철학의 로고스 개념을 수용해서 요한복음의 로고스(말씀) 개념과 연결시켰다. 더 나아가 수도원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관상하는 것과 동시에 수도사들의 지적 훈련을 강조했다.³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는 시가 감성을, 수사학이 표현력을, 변증법이 논리적 추리력을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학문과 예술을 가리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까지 표현했다.³¹⁾

물론, 인간 이성은 죄로 인하여 심각할 정도로 왜곡되고 부패해 있다. 이성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원에 대한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갈뱅의 표현대로, 하늘의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영리한 사람조차 두더지보다 눈이 더 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30) A. Holmes, “Integrating Faith and Learning in a Christian Liberal Arts Institution”, D. S. Dockery & D. P. Gushee, *The Future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9), 162~166.

31) A. Holmes, *Building the Christian Academy*,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lishing: 2001), 16~17.

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인간 이성이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³²⁾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며”(시 19:1~2), 바울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롬 1:20) 비록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앙이 학문의 토대라면, 이성은 학문의 수단과 방편이라 할 수 있다.³³⁾ 달리 표현하면, 계시가 지식의 근본과 학습의 동기를 제공한다면, 이성은 계시된 것을 이해하고 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³⁴⁾ 조지 마스덴(G. Marsden)은 신앙이 학문 일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³⁵⁾ 첫째, 신앙은 학자에게 자신이 맡은 학문을 열심을 내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다. 신앙은 그리스도인 학자들로 하여금 다른 학자들보다 더 성실한 연구자가 되도록 자극한다. 둘째, 신앙은 우리가 학문을 어디에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셋째, 신앙적 동기는 전문 분야나 연구 주제의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넷째, 신앙은 자기 전공이나 그 기반이 되는 전제들을 더 넓은 의미구조와 연관시키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4. 학문의 가치와 한계

하나님의 문화위임 가운데 하나로서 모든 학문은 가치를 지니고 있

32)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Westminster Press, 1960), 2.2.18; 2.2.13~17.

33) 전광식, 「학문의 숲길을 걷는 기쁨」(도서출판 CUP, 1998), 192.

34) A. Holmes, 「기독교대학의 이념」, 27.

35) G. Marsden, 「기독교적 학문연구 @ 현대 학문 세계」, 97.

다. 예를 들자면, 과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철학은 신앙의 변증은 물론 신앙의 지적 의미를 깨닫게 하며, 문학은 신앙적 상상력을 풍성하게 만든다. 음악과 건축과 미술 같은 창작활동은 예배를 풍성하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에 기초한 학문이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신앙은 이러한 인간 지식의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학문의 독단화나 절대화를 거부하고, 학문이 인간승배로 귀결되는 것을 막아준다.³⁶⁾ 이러한 한계는 인간의 지식 탐구 목적이 신처럼 되려는 욕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생겨난다. 인간은 지식을 통해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자연과 인간, 더 나아가 하나님을 지배하려는 욕심을 갖게 된다.³⁷⁾ 성경 말씀대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고전 8:1), 인간을 유혹의 길로 이끈다.(사 47:10) 실제로, 오늘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학문이 최고의 학문이며, 그것을 통해 인간과 사회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화된 사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자신들이 마치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

한편, 신앙은 인간의 지식 탐구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동기가 될 때도 많다는 점을 비판해야 한다. 끌레보의 버나드(Bernard of Clairveaux)는 그리스도인의 지식 추구의 동기가 호기심이나 명예욕이 아니라 사랑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떤 이는 지식 자체를 위해 지식을 추구하는데 이를 호기심이라 한다. 다른 이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지식을 추구하는데 이를 헛된 일이라 하겠다. 하지만 다른

36) 전광식, “신앙과 학문의 통합”, 기독교대학 교육개혁세미나 자료집, 「21C를 향한 기독교 대학 정체성 확립」(한남대/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 1995), 16.

37) M. Schwehn, *Exiles from Eden*, 131.

이들은 타인을 섬기고 교화하기 위해서 지식을 추구하는데 이를 일컬어 자비라 한다.”³⁸⁾

5. 소명으로서 학문

그리스도인 학자들은 신앙 안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소명자들이다. 흔히, 교수직은 전문직(profession)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는데, 전문직이란 ‘무엇인가를 고백한다(profess)’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고백자(professor)로서 그리스도인 학자들은 진리의 초월적 중심이며, 근원이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분과 깊은 인격적 체험이 선행되어야 한다.³⁹⁾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인간 삶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학자들은 케플러(J. Kepler)의 고백처럼 이성을 활용하여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명자들: “저는 하나님 당신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만큼의 지적인 능력으로 저의 소명을 완수했습니다. 저는 저의 유일한 영혼이 당신의 무한한 솜씨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증거를 읽게 될 사람들에게 당신의 솜씨를 찬양했습니다.”⁴⁰⁾

갈뱅의 관찰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소가 지적 교만과 호기심이라면, 가장 좋은 학문 태도는 겸손과 절제다.⁴¹⁾ 창조주를 믿는 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발명’(inventing)이 아니라

38) D. Dockery, “Introduction: Shaping a Christian Worldview”, 15 재인용.

39) P. Palmer,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162~163.

40) A. Holmes, 「기독교대학의 이념」, 25 재인용.

41) 이수영, “갈뱅신학의 특징과 한국신학”, 203.

‘발견’(discovering)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⁴²⁾ 지식인들이 겸손이란 덕목을 지니게 되면, 우주에 비해 자신을 터무니없이 크게 생각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경청하게 될 것이다.⁴³⁾

IV. 신앙과 학문 통합의 원리들

1. 성서적 토대

성서는 진리의 원천으로서, 구원을 위한 영적 진리만이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에 대한 인간적인 진리도 담고 있다. 성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으로서,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들의 중요한 학문 자료가 된다. 물론, 성서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규범이라고 해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식을 다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서는 그 안에 역사와 윤리와 우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만, 역사 교과서나 도덕 지침서, 혹은 과학 논문들의 모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성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과학이론이나 사회이론과 같은 체계적인 학문이론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그것보다는 인간과 역사, 그리고 삶에 대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문제들을 다룬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학자가 신앙과 학문을 올바르게 관계 맺으려면 필연적으로 성서에 기초해야 한다. 문제는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사용

42) E. Trueblood, *The Idea of a College* (N.Y: Harper & Brothers, 1959), 19~20.

43) P. Palmer,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16~157.

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있다. 왜냐하면, 성서의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인용한다고 해서 성서에 기초한 학문 활동을 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성서에 대한 해석학적 노력이 없이 단지 성서를 문자적으로 인용하다보면 자칫 자기의 학문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서를 증빙자료로 이용하게 된다. 게다가 성서에 대한 문자주의적 해석은 일부 창조과학자들처럼 자칫 창세기의 지구의 나이를 기껏해야 수 천년으로 산정하는 것과 같은 학문적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학문적 오류를 피하고 신앙과 학문 통합을 위한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학자들은 자신이 어떤 학문을 전공하든지 성서에 대한 신학적 기초 지식을 습득해야만 한다. 이 일을 위해 기독교 대학 당국은 각 전공 교수들의 신학적 소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배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학문적 규칙

학문이란 방법론적이고 설득적이며 보편적으로 타당한 지식 체계를 가리킨다.⁴⁴⁾ 학문에서 방법은 우리가 다루게 되는 학문적 대상에 대한 관점을 규정하고 자료를 한정한다. 학문적 방법은 어림짐작이나 무비판적 수용이 아니라 이성적 증거에 기초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학자에 의해 추구되는 학문 활동 역시 이러한 일반적인 학문 방법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학문을 일종의 경기규칙이라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그 규칙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 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의 도성>에서 말한 것처럼,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44) K. Jaspers, *The Idea of the University*, trans. by H. A. T. Reiche & H. F. Vanderschmidt (Beacon Press, 1959), 7.

도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세속도성에 대해서도 부차적이고 제한적인 충성을 바칠 필요가 있다. 스탠리 하우어와스(S. Hauerwas)가 주장한 대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이 세상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이 세상의 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⁴⁵⁾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리스도인 학자들 역시 진리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세상적인 언어와 방법들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만, 기독교 학문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비밀이라는 오해를 피할 수 있다.

조지 마스덴(G. Marsden)이 주장하듯이, ‘기독교적’ 수학이나 ‘기독교적’ 화학 반응을 측정하는 특수한 기독교적 학문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⁴⁶⁾ 기독교적 수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학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신앙과 학문을 관계 맺는다고 하는 것은 각각의 학문분야를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인식하고 판단하는 학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학문 연구는 다른 무신론적 학문 연구와 상당 부분 유사할 수 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 학자들은 학문의 동기와 세계관적 전제, 학문하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난다.

3. 학제간 연구 방법

오늘날 학문의 지나친 전문화가 지식의 파편성과 분절성을 가져온

45) G. Marsden, 「기독교 학문연구 @ 현대 학문 세계」, 86.

46) G. Marsden, 「기독교적 학문연구 @ 현대 학문 세계」, 23.

결과 같은 학과에 소속한 교수들조차도 동료 교수가 연구하는 분야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ies)가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학제간 연구란 각기 다른 학문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자신들의 연구분야로 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가는 연구 방식이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분야들 사이의 대화는 물론, 무엇보다 신학과 각 학문분야들과의 대화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신학은 기독교 학문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해주며, 각 전공 분야의 기독교적 연구가 단순히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피상적 수준을 극복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앙과 학문을 새롭게 관계 맺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학자들은 ‘평신도 신학자’(lay theologian)가 되어야 한다. 평신도 신학이란, 그렌츠(S. Grenz)와 올슨(R. Olson)의 표현에 따르면, 비판적인 성찰 대신에 관습의 전통을 맹목적으로 신앙하는 ‘민속 신학’(folk theology)이나, 지나치게 사변적이어서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현실생활과 무관한 ‘학술 신학’(academic theology)과는 다른 신학 수준으로서, 근거 없는 신앙적 전통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성취할 수 있는 신학을 가리킨다.⁴⁷⁾

4. 기독교 세계관적 토대

일반적으로, 세계관이란 인간과 세계(자연), 그리고 역사에 대한 폭넓은 해석의 틀을 가리킨다. 제임스 사이어(J. Sire)는 세계관이 다음 일곱 가지 질문들, 즉 궁극적 실재, 피조세계의 본질, 인간, 죽음 및 사후

47) S. Grenz & R. Olson, 이영훈 역, 「신학으로의 초대」, (IVP, 1999), 30~38.

세계, 지식과 이성, 옳고 그름의 판단, 역사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말한다.⁴⁸⁾ 세계관은 모든 학문 이론과 학문 분야가 기초하고 있는 전제들을 발견하고 검토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게다가 세계관은 각 학문의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기초들을 통하여 개별 학문을 조망할 수 있게 해주며, 사실들과 가치, 즉 과학과 윤리의 분리를 매울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⁴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공립학교에서 광범위하게 승인되고 있는 국가와 종교의 분리 원칙에 따라서 교사들은 개인의 특정한 종교적 신념을 강의실에서 표현하지 말 것을 요구받는다. 왜냐하면, 특정 종교의 신념에 대한 헌신은 학자의 중립성과 학문적 객관성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무신론 학자가 종교를 가진 학자보다 더 좋은 학자가 될 수 있다고 추론한다. 그래서 기독교 대학에서조차 기독교인만으로 교수를 임용하는데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하지만 어떤 학자도 특정한 세계관적 토대가 없이 학문 활동을 할 수는 없다. 심지어 무신론자 역시 하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학자들은 결국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전통, 그들이 지닌 방향과 신념이라는 틀 안에서 학문활동하기 마련이다.⁵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신앙을 학문활동의 장애요소로 판단하는 과학적 실증주의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칼 야스퍼스(K. Jaspers)의 지적처럼, 과학적 지식이란 존재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지식이며 특수한 것에 대한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과학

48) J. Sire, 정옥배 역, 「지성의 제자도」(IVP, 1994), 33~34.

49) A. Holmes, 「기독교대학의 이념」, 57~70.

50) G. Marsden, 「기독교적 학문 연구」 @ 현대 학문 세계, 125.

적 지식은 삶의 목표나 가치, 방향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능력하다.⁵¹⁾ 때문에 과학 실증주의적 지식체계는 사실들(facts)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가치관과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윤리관, 즉 포괄적인 의미에서 세계관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세계관은 다원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심지어 기독교 세계관마저도 전통과 신학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세계관적 개방성은 진리의 모든 면을 다 통합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생겨난다.⁵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세계관은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체의 초자연적 요소와 인격적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학문을 세속화시켰다. 따라서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려는 그리스도인 학자들은 자연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하는데 힘써야 한다. 한윤식은 오늘날의 기독교 대학들이 시설과 재정, 그리고 인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문적 수월성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위한 연구 활동보다는 새롭게 발견된 지식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정제하여 기독교 세계관으로 편입시키는 세계관적 연구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⁵³⁾

V. 결론

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살펴보면, 대학이 출현한 중세부터 줄곧 기독

51) K. Jaspers, *The Idea of the University*, 13.

52) A. Holmes, 「기독교대학의 이념」, 68~69.

53) 한윤식, “기독교 대학으로서 한동대학교. 그 가능성과 구현 방안”, *통합연구학회*, 「통합연구」통권 41호(2003/8), 244.

교적 세계관에 기초해서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해왔음을 알 수 있다. 과학 실증주의의 출현 이전까지는 지성 사회에서 신앙과 학문은 아무런 갈등이 없이 조화될 수 있었다. 그래서 아더 홈즈(A. Holmes)같은 학자는 우리 시대에 논의되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 (integration)이라는 개념보다는 '재통합' (reintegration)이라는 개념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한다.⁵⁴⁾ 통합이든 재통합이든, 신앙과 학문의 관계성 회복은 교회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의미와 방향을 상실한 오늘날의 학문세계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신앙과 학문은 동일시되어서도 안 되지만, 상호 무관한 것으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 둘은 서로 구별되면서도 창조적 긴장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말하자면, 신앙은 학문의 동기와 목적을 제공하고, 학문은 신앙의 맹목성을 견제하며 성찰적인 신앙으로 성숙시켜야 한다. 신앙은 학문의 가능성만이 아니라 그 위험성과 한계도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학문이 인간과 사회, 그리고 세계(자연)를 돌보고 섬기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스도인 학자들은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소명자들이다. 그들은 신앙적 수월성만이 아니라 학문적 탁월성도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기독교 대학에서 추구하는 학문적 수월성의 판단기준은 일반 대학에서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신앙과 학문의 통합 능력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동기도 세상적 명예나 부에 대한 욕망, 그리고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과 세계를 섬기는데 있어야 한

54) A. Homes, "Integrating Faith and Learning in a Christian Liberal Arts Institution", D. S. Dockery & D. P. Gushee, *The Future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 161.

다. 그리스도인 학자들은 대학의 세속적 학문 분위기 속에서 고립된 개인들로서가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해야 한다. 기독교 대학 당국은 신앙과 학문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한 새로운 모델들을 발견하며 제시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문분야에 헌신한 교수들을 경제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하여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한 연구의욕을 높이고 훈련시키는 것도 대학 당국의 몫이다.

참고문헌

- Bratt, J. D. and Wells, R. A., "Piety and Progress: A History of Calvin College", in: R. T. Hughes and W. B. Adrian, Models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Eerdmans Publishing, 1997)
- Calvin, J.,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Westminster Press, 1960)
- Dockery, D., "Introduction: Shaping A Christian Worldview", D. S. Dockery & G. A. Thornbury, Shaping A Christian Worldview, The Foundation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2)
- Green, B., "Theological and Philosophical Foundations", D. S. Dockery & G. A. Thornbury, Shaping A Christian Worldview, The Foundation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2)
- _____, "Integrating Faith and Learning in a Christian Liberal Arts Institution", D. S. Dockery & D. P. Gushee, The Future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9)
- _____, Building the Christian Academy,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lishing: 2001)
- Jaspers, K., The Idea of the University, trans. by H. A. T. Reiche & H. F. Vanderschmidt (Beacon Press, 1959)
- Schwehn, M., Exils from Eden: Religion and the Academic Vocation in America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Sloan, D., Faith and Knowledge: Mainline Protestantism and American Higher Education (John Knox Press: 1994)
- Trueblood, E., The Idea of a College (N.Y: Harper & Brothers, 1959)
- H. Fernhout, "포스트모더니즘의 격랑을 헤쳐나가야 할 기독교교육", 「빛과 소금」 (1996/11)
- G. Marsden, 조호연 역, 「기독교적 학문 연구 @ 현대 학문 세계」 (IVP, 2000)
- G. Marsden, 홍치모 역, 「미국의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이해」 (성광문화사, 1992)
- M. A. Noll, 이승학 역,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 (엠마오, 1996)
- A. Holmes, 박진경 역, 「기독교대학의 이념」 (도서출판 CUP, 1992)

- A. Holmes, 서원모 역,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 P. Palmer, 이종태 역,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IVP, 2000)
- S. Grenz & R. Olson, 이영훈 역, 「신학으로의 초대」 (IVP, 1999)
- J. Sire, 정옥배 역, 「지성의 제자도」 (IVP, 1994)
- 간하배, 「한국 장로교 신학 사상」 (실로암, 1988)
- 김기숙, 「코메니우스의 인간성 교육론과 기독교 대학」 (한들출판사, 2003)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 신득렬, 「위대한 대화: R. M. Hutchins 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02)
-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대한기독교서회, 2000)
- 이수영, “칼뱅신학의 특징과 한국신학”, 한국성서학연구소편, 「한국적 신학의 모색」 (한국성서학연구소, 1992)
- 전광식, 「학문의 숲길을 걷는 기쁨」 (도서출판 CUP, 1998)
- , “신앙과 학문의 통합”, 기독교대학 교육개혁세미나 자료집, 「21C를 향한 기독교 대학 정체성 확립」 (한남대/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 1995)
- 한윤식, “기독교 대학으로서 한동대학교. 그 가능성과 구현 방안”, 통합연구학회, 「통합연구」 통권 41호(2003/8)

조용훈(한남대 기독교학과 교수)

독일 Bonn대학 신학박사(기독교윤리)로 한남대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며, 통합연구학회 이사 및 대덕장로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기독교 환경윤리의 실천과제>(대한기독교서회, 1997), <지구화 시대의 기독교>(대한기독교서회, 1999), <동서양의 자연관과 기독교 환경윤리>(대한기독교서회, 2002), *Entwicklungspolitik und Kirche in Suedkorea*(Waxmann Verlag, 2000) 등이 있다.